

보도시점 2025. 5. 20.(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5. 5. 19.(월)

건전지부터 전자제품 내장 전지까지... 전자류 회수 체계 하나로 통합

- 환경부·환경공단·공제조합과 손잡고 ‘전자류 통합회수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21일 엘더블유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자류 통합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비영리단체

현재 일차전자류(건전지, 리튬일차전지 등)는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전지 수거함을 통해 배출 후 비정기적으로 회수되며, 전자제품에 내장된 리튬이차전지는 이순환거버넌스가 자체 운영하는 무상 방문 수거, 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 등을 통해 상시 회수*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전국에서 배출되는 폐전자제품을 200여 대의 회수 차량을 활용하여 상시 회수

그간 일차와 이차전자류는 외형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 분리배출이 어려웠으며, 특히 일차전자류는 회수 주기가 길어 수거함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오염물질 누액,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순환거버넌스와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는 통합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제품 상시 회수 체계를 활용하여 건전지(일차전자류), 전자제품 내장 전지(이차전자류) 등 다양한 종류의 폐전지를 신속하게 회수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류 통합회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행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또한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일차전지류와 이차전지류를 일괄 배출할 수 있는 통합 수거함 1,0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지류의 배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은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종류 구분 없이 기존 공공주택(아파트) 등에 설치된 건전지 수거함, 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 또는 무상방문 수거* 시 어디에나 쉽고 편하게 배출할 수 있다.

*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제품 무상방문 수거(1599-0903 신청) 시 전지류 배출 가능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통합회수 체계 도입을 통해 수거 지연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 편의성과 회수 효율이 동시에 높아져 전지류의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 누구나 전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회수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지류 자원순환 체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통합회수 체계 구축 계획 개요.
2. 전지 종류 및 주 사용처.
3. 전기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 운영 현황.
4.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책임자	부단장	배정 한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황원재 (044-201-7399)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6715)
		담당자	사무관	양지우 (044-201-7382)

□ **추진배경**

- (현황) 일차전지, 이차전지에 대해 별도의 회수·재활용 체계 운영 중
 - * (일차전지) 건전지 등 5종 전지 수거함 배출 → 지자체 회수
 - (이차전지) 전지 내장 제품 방문수거, 수거함 등 배출 → 이순환거버넌스 자체 회수
- (문제점) 전지 종류별로 다른 분리배출 방법으로 국민 불편 확대, 전지 수거함 수거 지연*으로 장시간 방치 시 화재사고 우려
 - * 전지 수거함 포화 시 지자체 중심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활용하여 수거

□ **통합회수 체계 구축 방안**

- 전자제품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 물류망 활용 건전지-전자제품 통합회수
 - ※ 전자제품 전용 수거·운송 인프라(수거차량 200여대)를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일괄 회수
- 지하철역 등에 불연성 재질의 통합 수거함 보급(~'26, 1,000여개)

< 전지류 통합회수 체계 개선방안 >

구분	현행	개선안
건전지 (1차전지)	- (배출) 건전지 수거함 - (수거) 지자체 - (주기) 간헐적, 가득	- (배출) 모든 수거방법* 활용(분리배출 불필요), 불연성 재질 통합 수거함 별도 보급 * 건전지 수거함, 전자제품 수거함, 무상방문 수거
전자제품 (2차전지)	- (배출) 무상방문 수거, 전자제품 수거함 - (수거) 전자제품공제조합 - (주기) 상시 또는 월 1회	- (수거) 전자제품공제조합 - (주기) 상시 또는 주기적 통합수거 * 신속한 수거 및 재활용, 보관 중 화재 발생 사전 예방 효과

- 종류 구분 없이 現 수거함을 활용한 통합 배출 유도
 - ※ 불명확한 기존 분리배출 방법에 통합 배출 가능 명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정, '25.下)

□ **업무협약식 행사개요**

- (시간/장소) '25.5.21(수), 11:00 ~ 11:35 / LW컨벤션 서울역점*
 - * 서울 중구 청파로 464 3층 크리스탈홀
- (참석자) **환경부** 국장, **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회장,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붙임 2

전지 종류 및 주 사용처

구분	품목	형태	주사용처	사진
1 차 전 지	*수은전지	버튼형	1995년 이후 생산(제조)금지. 2021년 현재 미배출	
	*산화은전지	버튼형	손목시계	
	*리튬1차전지	버튼형, 원통형, 각형	전자저울, 자동차키, 소방감지기 등	
	*망간/ 알칼리전지	버튼형, 원통형, 각형	도어락, 리모컨, 완구류 등	
	공기아연전지	버튼형	보청기	
2 차 전 지	*니켈 카드뮴전지	원통형, 각형	산업용UPS, 이동형소형가전제품 등	
	*니켈 수소전지	원통형, 각형	하이브리드용자동차, 전동공구, 이동형소형가전제품 등	
	리튬 이온전지	원통형, 각형	핸드폰, 노트북, 보조배터리, 전기차, 무선청소기, 전동공구 등	
	리튬 폴리머전지	원통형, 각형	보조배터리, 드론, 통신장비, 쿼보드 등	
	리튬 인산철전지	각형	산업용UPS, 캠핑용, 보조배터리 등	
	납축전지	각형	자동차, 오토바이, 산업용UPS 등	

* 「자원재활용법」 EPR 품목

붙임 3

전기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 운영 현황

□ 추진배경

-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배출 편의 향상 및 안전한 수거를 위해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에 이동식 수거함 설치·운영

※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제품은 무상방문 수거 신청(1599-0903) 후 배출

□ 수거함 개요

- (설치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공시설(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 설치 장소 확인 :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e-cycle.or.kr)

구분	이동식 수거함	전지류 통합 수거함
형태		 불연성 시험 완료 ✓ 재질 : 실리카 ✓ 시험규격 : 섬유제품의 방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시험 규격(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배출방법	4개 제품군*별 분리배출	1차·2차전지 일괄 배출
재질	거치대 : 아연 각판 마대 : PP	거치대 : 아연 각판 마대 : 실리카 섬유(불연성)
보급현황	약 12,000대	1,000대 보급 예정(~'26)

* (온도교환) 정수기, 제습기 등, (통신사무) 컴퓨터, 복사기 등,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비게이션 등, (일반) 그 외 모든 제품

- (수거 절차) 사전 공지 기간에 수거함 설치* → 폐전기전자제품 배출(수량무관) → 이순환거버넌스 일괄 회수

* 관리자(관리사무소 등)가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 주기·기간, 위치 등을 사전에 공지(월 1회 이상)

- (수거함 보급) 수거함 설치 장소 협의 후 수거함 제공

※ 수거함 설치 문의 : 1899-7047(이순환거버넌스 콜센터)

『전자류 통합회수 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E-순환거버넌스는 상호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자류 폐기물의 국민배출 편의 증대와 안전성 향상을 극대화한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공의 목적 달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업무협력의 내용 및 기관별 역할) 각 기관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① 환경부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전자류 통합회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2. 전자류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제도 정비

②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관리·운영
2. 전자류 EPR 적정재활용 실적검증 및 사후관리
3. “전자류 통합회수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③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E-순환거버넌스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전자류 폐기물 통합회수체계 구축(시범사업 포함)
2. 전자류 회수체계 안정화를 위한 공제기능 통합 노력
3. “전자류 통합회수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제3조(협력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유효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기간 만료일 이전에 협약 기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협약서상의 제반 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제4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비밀의 유지) 협약기관은 협약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법적구속력 배제) 제5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제7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4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5 월 21일



국
김 고 응



회
임 현 열



이
정 재 웅



이
정 사 장
덕 덕 기